

# 9월 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kimsh@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그린스핀 "美 은행들 자본수준 높여야"	그린스핀 전 연준 의장은 이날 인도 뭍바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위성 연설을 통해 "도취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나 위기가 아니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완충 자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그린스핀 전 의장은 전세계 경제의 상당한 침체로 인해 음식료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율이 내년 초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음.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에 의해 금융 시스템에 투입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은 인플레이 압력을 높일 것이며, 중앙은행들이 자산가격 상승을 억누르지 않는다면 인플레이는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 또 버블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버블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
유럽증시 상승세로 마감	7일(현지시간) 유럽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 국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마감가대비 1.67% 오른 4933.18을, 독일 DAX30 지수는 1.46% 오른 5463.51을 기록. 프랑스 CAC40 지수는 1.50% 오른 3652.83을 기록. 이날 캐드버리는 미국의 크래프트푸즈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면서 크게 올랐다. 도이체텔레콤과 프랑스텔레콤 역시 영국 사업부문을 합치기로 하면서 크게 올랐음.
오바마, 건보개혁 입법 막바지 '총력전'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 휴일인 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국 산별노조총연맹(AFL-CIO) 기념 행사장을 찾아 "건강보험 개혁 논쟁을 끝낼 때"라면서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음. 지난 여름 잇따른 타운홀 미팅과 비공식적인 발언 등을 통해 건보 개혁을 역설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8일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헤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만나 오는 9일 가질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을 상의할 예정.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건강보험을 운영, 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공공보험 도입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음.
도이체-프랑스텔레콤, 英 사업부문 합병 임박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직 딜이 최종완료되지 않았지만 두 회사의 영국 부분이 합쳐질 경우 텔레포니카의 O2 서비스를 앞지르고 영국 시장내 38%에 달하는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할 전망. 두 통신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감원을 실시해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는 계획. 이번 딜로 영국 내 휴대폰 운영업체 수는 4개로 줄어들게 됨. 또 수개월간 영국 통신업계에 난무했던 도이체텔레콤의 영국 자회사 매각 및 철수와 관련 한 각종 추측들도 잠잠해질 전망.

제목	주요 내용
도시바, 차세대 반도체 아웃소싱 논의중	도시바는 손실을 내고 있는 반도체 사업부 비용 절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세계 1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도시바는 일본 남부 오이타 소재 공장에서 28나노미터(nm)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생산량을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음. 미즈호 인베스트먼트 증권회사 이사 유이치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도시바가 28nm 반도체 생산 모두를 아웃소싱할 것으로 전망. 차터드 세미컨덕터와 글로벌 파운더리즈 등은 모두 IBM이 주도하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임.
도시바, 차세대 반도체 아웃소싱 논의중	도시바는 손실을 내고 있는 반도체 사업부 비용 절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세계 1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도시바는 일본 남부 오이타 소재 공장에서 28나노미터(nm)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생산량을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음. 미즈호 인베스트먼트 증권회사 이사 유이치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도시바가 28nm 반도체 생산 모두를 아웃소싱할 것으로 전망. 차터드 세미컨덕터와 글로벌 파운더리즈 등은 모두 IBM이 주도하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임.
내년 예산 290조원대.. 복지예산 6조~7조원 확대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포함 예산의 사이인 290조원 중반대로 잠정 결정. 또 내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될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4대강살리기 사업비중 절반 이상인 8조원을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담.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일자리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등이 집중 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284.5조원) 보다 많고 추경을 포함한 예산(301.8조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해 290조원 중반대로 잠정 결정됐음을 시사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